

#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이민의 날) 2016.5.1.(다해) 제1996호



산내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 오늘의 전례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6)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참 평화를 주십니다. 참으로 평화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사도 15,1-2,22-29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복음** 요한 14,23-29.

**입당송**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재현 요한 신부 | 신륵본당 주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만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나요?”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물쭈물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라고 물으니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져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잘 듣고 잘 지켜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피해가 오거나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만 고집하는 사랑입니다. 스토커나 의처증, 의부증 환자의 사랑을 올바른 모습의 사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빼놓아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지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따르지 못합니다. 부족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혹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잘 지킬 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평화가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도**

제6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 주일 담화문(요약)

#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의 신비를 경축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5월 1일은 제6회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며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나이가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선의의 모든 이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을 포함해 모든 생명은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하지만 존엄한 인간 생명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합니다.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기심과 증오, 시기와 질투, 편견주의와 배금주의가 빚어내는 생명 파괴가 우리 사회를 신음하게 합니다. 날마다 낙태가 수없이 자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귀찮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와 존비속 살해가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지 편의를 위해 또는 돈을 위해 생명을 거스르는 음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그릇된 행태가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시도되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생명을 수호하는 이들이 ‘조기 낙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응급 피임약의 시판 허용도 그 하나입니다.

지난 1월에 법제화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존엄사법’ 혹은 ‘잘 죽는 법’이 아닙니다. 죽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법,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법이어야 입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들을 위한 완화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이 그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간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또 다른 영역은 유전자 관련 분야입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선용하면 질병 치료 등 인간 삶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성숙한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시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생태적 회개”입니다. 생태적 회개는 하느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 나아가 사회 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올바른 관계, 곧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6~221항 참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가톨릭교회와 함께 자비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라는 자비의 해 모토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2016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이민과 난민이라는 도전에 대한 응답인 자비의 복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자기 양떼와 함께 하는 목자처럼 모든 이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치거나 지치거나 병든 양들을 특히 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우리 시대에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고향을 떠나는 이들은 다른 개인과 공동체를 마주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도전이 되고 때로는 자신이 접하는 문화적 사회적 지평을 흔들어 놓습니다. 폭력과 빈곤의 희생자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여정에서 인신매매범들의 비인간적 만행에 점점 더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자비의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타인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저는 2016년 세계 이민의 날 주제를 “**이민과 난민의 도전에 대한 자비의 복음의 응답**”으로 정하였습니다. 국제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 사연들을 날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 기아, 폭력, 난파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무관심하게 침묵한다면 우리는 공범이 되고 맙니다.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온 평온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본당 공동체에서도 이민들의 수용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주는 답은 자비입니다.

다. 무엇보다도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비는 다른 이들과의 연대를 촉진하고 강화합니다. 이 연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로마 5,5 참조)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에 맞갖은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 저마다는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들의 지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만을 따지지 말고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들의 존엄이 보장되면 그들은 모든 이의 행복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주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권리의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의 편에 섭니다. 이 과정에는 처음부터 이민과 난민의 출신 국가에 대한 도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불균형을 종식시키기 위한 좀 더 확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민과 난민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느님 자비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과 난민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이집트를 향한 고통스러운 이주를 체험하신 요셉 성인께 여러분과 여러분을 돕는 모든 이들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전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햇볕 한 줌

## 주님께서 하시는 일



마더 테레사가 처음으로 거대한 고아원을 인도 켈커타에 건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중매체 기자들은 켈커타에서 벌어질 마더 테레사의 활약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뒀습니다. 한 기자가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도복을 뒤적이더니 3실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인 이 3실링이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농담 하는 줄 알고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저는 이 3실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3실링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마더 테레사의 이 믿음을 대중매체로 접한 사람들의 후원으로 건물을 짓고도 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있는 후원회 본부에 회의 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현재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후원 계획에 대해 열띤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 논의에 지루해 하다가 문득 사람들 앞에 놓인 물병을 보고 시종드는 사람에게 그 물이 한 병에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 병에 3달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더 테레사가 일어나 한 마디 하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후원회는 해체합니다.”

후원회를 해체한다면 마더 테레사가 하는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필요**

## 교구장 동정

### ■故 이종흥 몬시뇰 선종 1주기 미사



故 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선종 1주기 미사가 4월 19일(화) 오전 10시 성직자묘지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 암센터·장기이식센터 축복식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암센터·장기이식센터 축복식이 4월 21일(목) 오후 2시에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대구주보 2000호 기념 특별 프로그램

### ■ 신앙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기간 : 2016년 4월 11일(월)~5월 10일(화) 마감일 도착분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ubo@dgca.or.kr

### ■ 대구주보 2000호 축하톡톡

기간 : 2016년 4월 18일(월)~5월 15일(일)

내용 : 축하와 응원의 한 줄 메시지(30자 이하)를 보내 주세요

### ■ 대구주보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기간 : 2016년 5월 20일(금)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 자세한 사항은 대구주보 홈페이지(<http://www.daegujubo.or.kr>) 공지사항 참고



## 사이비 신흥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율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근본은 잊지 말아야



### ⑥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이민의 날)

## 미 사 안 내

|                      |                        |                  |                        |
|----------------------|------------------------|------------------|------------------------|
|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5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5월 4일(수) 11:30 계산성당    |
|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 5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 5월 4일(수) 19:00 근화여교 경당 |
|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5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 5월 7일(토) 10:00 프란치스코눔  |
| 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 5월 2일(월) 19:30 푸르실료교육관 |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5월 7일(토) 11:00 대안성당    |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5.8(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예수회 5월 성소 모임

일시: 5.14(토), 28(토) 14:00

장소: 한국관구(서강대 옆)

문의: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5.8(일) 14:00

장소: 가톨릭 근로자회관 경당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여성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 제11차 여성 성령 피정

기간: 5.13(금)~15(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 홈페이지 참조

####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 \_엠마오의 길 피정

기간: 수도자 7.11(월)~8.9(화) 30일

성직자·수도자 8.17(수) 5박 6일

8.3(수), 8.25(목) 8박 9일  
성직자·수도자 개인피정 항시 가능  
문의: (064)796-5227

#### 힐데가르트 영성 일일 피정

일시: 5.15(일) 9:30~17: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2만 원(가족단위 환영)

문의: 313-3425

(010)7103-3425

####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일일 피정

일시: 5.22(일) 10:00~17:00

장소: 부산 본원 / 회비: 무료

주제: 성모님의 삶\_마음의 영성가

대상: 35세 이하 남녀 미혼 청년

문의: (010)4203-3217 / (010)9330-3104

#### 제주도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5.11~14 / 5.17~20 / 5.22~24

5.27~30 / 6.3~6 / 6.15~17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 교육 | 모집 | 기타

#### 청년 책임기 모임

일시: 매월 넷째주(화) 19: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주제: 책을 통해 하느님 안에 쉬기  
문의: 김스페란자 수녀  
(010)2503-5185

#### 34차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6.11(토)~22(수) 11박 12일

순례지: 요르단, 이스라엘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 제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초·중·고: 7.21(목)~8.11(목)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설명회: 5.14(토) 14:00, 남산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시설 운영

개인 피정, 개인·가족 휴가(자체취사)

문의: (054)783-6684 / (010)5348-3431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4박 5일: 5.9(월) 14:00~13(금)

8박 9일: 5.16(월) 14:00~24(화)

에니어그램: 5.26(목) 15:30~28(토)

문의: (031)946-2337~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8월 29일 (13박 14일)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 힐 래(유스티노)  
홍 미 화(안젤라)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 구 정 신 병 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크리닉  
2F 오토피스킨케어/여드름크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듀류역 2번출구 ☎ 566-4333

자기주도학습전문  
**UP학습코칭·논술**  
글분석·공부방법·다중지능검사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 행사 | 모임

###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5.17(화)~18(수)

시니어 피정: 5.24(화)~25(수)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 2박 3일 성령 세미나(차량운행)

기간: 5.13(금) 13:30~15(일) 17:00

1박 2일 피정(차량운행)

기간: 5.28(토) 14:30~29(일) 16:00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 성화 자수전과 꽃꽂이전

기간: 5.26(목) 14:00~29(일) 16:00

장소: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본원

출전: 김안나 수녀, 이매임데레사 원장

문의: (054)976-6219

## 교육 | 모집

### 교구 청년구 청년리더십 16기

기간: 5.21(토)~22(일) / 28(토)~29(일)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예비신자 가능)

신청: www.facebook.com/bosmath

팩스: 255-6690(선착순 30명 마감)

###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1차 ME주말: 5.27(금) 19:00~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분

문의: (010)2662-1560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

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

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2급, 창

작소설, 중급·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범

꽃꽂이, 장구병창 / 신청: 254-6115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일시: 5.25(수), 26(목) 9:00~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3층 데레사홀

마감: 5.18(수) / 3만 원(중식, 교재)

대구은행 508-12-426680-6 호스피스

문의: 650-4557 / 650-3560

### 2016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접수기간: 5.2(월)~13(금) 예정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 및 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6.25) / 문의: 593-1273

###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5.31(화), 성모님 발현지

경비: 425만 원(11박 12일)

일자: 6.25(토), 이스라엘·이탈리아

경비: 435만 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 채용 | 안내

### 해은학원 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접수기간: 5.4(수)~13(금)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참조

http://daegu-archdiocese.or.kr/NEWS

문의: 660-5161

### 가톨릭근로자회관 직원 채용

담당업무: 이주민 담당, 프로그램

문의: 253-1313 / 홈페이지 참조

http://cafe.daum.net/catholiccenter

###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설동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주소록은 2년에 한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 대구은행 본점  
코리아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대구연세안과**  
아이디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충원(소시모)  
☎(053)626-8881~5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3대를 이어온 경복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복고 제품 ◎ 공진단  
◎ 경복고(젤류, 환, 차, 팩, 샴푸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6월 3일 산티아고 도보순례 (출발확정) 및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